

2017년 경찰 1차 대비 한국사(경기 북부 여경, 4월 29일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뿔이뼈 등이 출토되었다.
- ② 부여 송국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 집터의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2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 ③ 신석기 시대에는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는 것을 피하는 족외혼이 지켜졌으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토테미즘이 나타났다.
- ④ 철기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정답 : ③

③ 신석기 시대에 점차 다른 씨족과의 족외혼을 통하여 부족사회를 이룬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신앙은 애니미즘이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에 대한 숭배를 뜻한다.

① 구석기 시대 유적인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털코뿔이 앞발 뼈에 사람 얼굴을 새긴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이 발견되었다. ② 청동기 시대 유적인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집터의 가운데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양 끝에 2개의 기둥 구멍이 있는 집터가 발견되었다. ④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이전에 비해 농업이 발달하였고,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이 함께 발견되어 중국과의 교류 사실을 보여준다.

2.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이들 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중략)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②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열렸으며, 이는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③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④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나라’는 부여이다.

④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공동묘의 풍습이 있었던 국가는 옥저이다.

①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껌문거리와 함께 사람을 매장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② 부여는 은력 정월인 12월에 수렵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시행하였다. ③ 부여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12배로 갚는 1책 12법이 있었으며, 살인의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3. 통일신라의 토지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
| ㉠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 ㉡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 ㉢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 ㉣ 여러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①

㉡ 문무 관료전의 지급은 신문왕 대인 687년, ㉢ 녹읍의 혁파와 세조(歲租) 지급은 신문왕 대인 689년, ㉠ 정전 지급은 성덕왕 대인 722년, ㉣ 녹읍의 부활은 경덕왕 대인 757년의 일이다.

4. 신라시대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골 귀족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수학하고 온 뒤 영주에 부석사를 세웠다.
② 인도에 들어가 성지를 순례하고 기행문을 저술하였다.
③ 대중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주장하였다.
④ 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게 하였다.

정답 : ③

③ 원효는 아미타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을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불교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① 당나라 유학 후 부석사를 건립한 것은 의상, ②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혜초, ④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주장한 자장에 대한 설명이다.

5. 다음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것은?

왕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위와 아래가 있고, 벼슬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습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의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하여 예절이 분수에 넘치는 데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옛날 법에 따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그래도 만약 일부러 범하는 자는 진실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로 이동하여 국가를 세웠다.
- ② 장보고가 당에서 귀국하여 현재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 ③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감각으로 표현한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 ④ 견훤이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신라 하대 흥덕왕 9년(834)에 내려진 ‘사치금지령’이다.

- ② 828년 장보고가 흥덕왕의 승낙을 얻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고,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 교통을 장악하였다.

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하여 동모산 기슭에서 진(辰)을 건국한 것은 698년의 일이다. ③ 김대성에 의해 불국사가 축조된 것은 신라 중대 경덕왕 대인 751년의 일이다. ④ 견훤이 완산주에 후백제를 건국한 것은 900년의 일이다.

6.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 ②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시행하고, 이어 많은 건국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③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국가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 ④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보다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더 많았으며, 호족들은 점차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로 바뀌게 되었다.

정답 : ④

- ④ 고려 전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많았으며, 향리들은 속현의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태조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으며,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② 광종은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귀족 세력 억제와 재정확보를 위해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공신과 호족 세력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③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28조’를 수용하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교육을 중시하여 중앙 교육기

관인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7.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p>㉠ 숙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나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다.</p> <p>㉡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과’에서는 인품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전시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급액수가 줄어들었다.</p> <p>㉢ 원나라는 ‘동녕부’를 설치한 이후 철령 이북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다.</p> <p>㉣ 고려시대 중류층에는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였던 ‘잡류’와 궁중 실무를 관리한 ‘남반’ 등이 속하였다.</p> <p>㉤ 고려시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였다.</p> |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①

㉠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주조되었다. 숙종 때에는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삼한통보·해동통보·동국통보 등을 주조하였다. ㉡ 원나라는 1258년 철령 이북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이후 1270년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과는 주관적 요소인 인품을 배제하고 18품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전시과에 비해 지급액수가 줄어들었다. ㉣ 고려 시대 중류층에는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와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남반과 향리, 군반, 역리 등이 속하였다. ㉤ 고려시대에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8. 고려 후기 공민왕 재위 때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건적이 침입해 와서 왕이 복주까지 피난하기도 하였다.
- ② 신돈을 등용하였으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 ③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케 하였다.
- ④ 왕을 시해하려는 홍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정답 : ③

③ 박위의 쓰시마 섬 정벌은 1389년인 창왕 때의 일이다.

① 공민왕 때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홍건적의 2차 침입 때(1361) 공민왕이 복주(안동)로 피난하였다. ② 공민왕 때 국가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섭정대사로 신돈을 등용하여, 불법적으로 겸병한 권문세족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 된 자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④ 홍왕사의 변은 공민왕 12년(1363) 김용(金鏞)이 홍왕사 행궁(行宮)에 머무르던 공민왕을 시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홍왕사의 난을 토벌한 공민왕은 외척 세력과 부원배를

배제하고, 신돈을 등용시켜 개혁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9. 조선 전기 각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종 때에는 호패법이 실시되었으며,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간원이 독립되었다.
- ② 세종 때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반포되었고, 최윤덕, 김종서 등의 활약으로 북방의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 ③ 세조 때에는 집현전이 폐지되었고, 불교를 억제할 목적으로 간경도감이 폐지되었다.
- ④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정답 : ③

③ 세조 때에는 언관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집현전을 폐지하였고,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전개하여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기도 하였다.

① 태종 때는 농민의 유망과 이탈 방지 목적으로 호패법을 실시하였으며,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낭사를 독립시켜 사간원을 설치하였다. ②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최윤덕이 4군,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함으로써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④ 직전법 실시 이후 경제적 기반 상실을 우려한 관리들이 공법 규정액을 초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발생하자, 성종은 지방 관청이 관리의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1470)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10. 밀줄 친 상왕이 재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왕께서 나이가 어려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왕에게 아뢰어라.

- ①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을 주조하였다.
- ②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 ③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언론기관으로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④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 당악, 향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사대부들에게 ‘주자가례’를 장려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세조 즉위 이후 6조 직제체의 실시로, 밀줄 친 ‘상왕’은 ‘단종’이다.

③ 홍문관은 서적 관리를 위해 세조 때 처음 설치되었으나, 홍문관이 언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경연을 담당하며 경연 제도가 활성화 된 것은 성종 대이다.

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의 활자를 주조하고,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한 것은 세종 대의 일이다. ② 금부삼복법을 시행하여 사형에 처할만

한 사람에게도 삼심제를 적용하게 한 것은 세종 대의 일이다. ④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 당악, 향악 등 음악을 정리하게 하고, 사대부들에게 주자가례를 장려한 것은 세종 대의 일이다.

11. 조선 후기 실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정약용 -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인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 ② 유형원 - 『성호사설』을 저술하였으며, 양반 문벌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 ③ 이익 - 『곽우록』에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인 영업전의 매매를 허가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 ④ 유수원 - 『의산문답』을 저술하였으며,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①

- ① 정약용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30가구를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1여(閭)로 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고자 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 ② 『성호사설』을 저술하고 양반 문벌 제도와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한 인물은 성호 이익이다. ③ 이익은 『곽우록』에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균등을 이루게 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④ 『의산문답』을 저술하고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강시켜야 함을 주장한 인물은 홍대용이다.

12. 조선 후기 활동한 사상(私商)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상-개성을 근거지로 하여 상행위를 하였으며,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판매하였다.
- ② 경강상인 - 선상(선박을 이용한 상행위)을 하였으며,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소금·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 ③ 만상 - 의주를 근거지로 활동하였으며, 주로 대청무역을 담당하였다.
- ④ 유상 - 동래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였다. 주로 대일 무역을 담당하였으며, 인삼·무명·쌀 등을 수출하고, 은·구리·황·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정답 : ④

- ④ 부산 동래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대일 무역을 담당한 사상은 내상(萊商)이다. 유상은 평양을 근거지로 상업 활동을 전개한 사상이다.
- ① 송상은 개성상인으로 증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 인삼의 재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송방을 중심으로 만상과 내상을 연계하면서 대외 중계 무역에도 관여하였다. ② 대표적인 선상인 경강상인은 조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구 무역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하였다. ③ 대 중국무역(대청무역)을 주도하며 재화를 많이 축적한 사상은 의주의 만

상이다.

13. 조선 후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일반화되었으며, 소작료의 징수 방법은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으로 바뀌어 갔다.
- ② 영조 때에는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2필이던 군포를 1필로 감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1결당 결작 2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려 하였다.
- ③ 공인은 시전뿐 아니라 전국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점차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고로 성장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 내부에서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으며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정답 : ①

- ① 17세기 이후 전호권이 성장함에 따라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지대를 납부하는 도조법(정액 지대)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지대 납부 방식은 여전히 타조법(정률 지대)이었다.
- ② 균역법은 영조 대 균역의 문란을 혁파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1년에 2필씩 부과하던 군포를 1필로 경감해 준 제도였다.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부족해진 군포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것이 결국 농민에게 전가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 ③ 공인(貢人)은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나타난 어용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貢價)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이들은 서울의 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변동 등으로 종래의 사회 계층 구조가 변화되면서 신분제의 동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는 지배층의 분열과도 연관되어 진행되었고, 중앙 정계에서 배제된 다수의 양반들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향촌 사회에서나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殘班)이 되었다.

14.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여하는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을 저술하였으며,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져 왔다고 하여 ‘기자조선-마한-신라’를 정통국가로 내세웠다.
- ② 신경준이 저술한 『대동운부군옥』은 단군시대 이래의 지리, 역사, 인물, 문학, 식물, 동물 등을 총망라한 어휘백과사전이다.
- ③ 홍대용은 서양과학의 본질이 수학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동양과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 ④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저술하여 우리 고유의 농학을 중심에 두고 중국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정답 : ②

② 『대동운부군옥』은 권문해가 어휘의 마지막 운(韻)으로 어휘를 분류한 사전으로 지리, 역사, 인물을 총망라하여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경준의 대표적 훈민정음 연구 저서는 『훈민정음운해』가 있다.

① 홍여하는 주자의 강목법 입장에서 기전체 형식으로 고려사를 재정리한 『휘찬여사』를 저술하였으며, 말년에는 『동국통감』을 주자의 강목법에 따라 고쳐 쓴 『동국통감제강』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홍여하의 역사 인식에는 기자-마한-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영남 남인의 입장이 들어 있다. ③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중국·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④ 서호수의 『해동농서』에서는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게 농법을 개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책은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등의 체계를 계승하였으며, 중국의 농서도 참조하여 남북의 농법을 모두 종합하였다.

1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1863년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그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 ①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 ② 『대전통편』,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하였다.
- ③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 ④ 일부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철폐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홍선 대원군’이다.

② 홍선 대원군은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정조 대 편찬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 조례 등의 증감된 것을 모아 『철종실록』 편찬 이후 새로이 『대전회통(1865)』과 『육전조례(1867)』 등의 법전을 정비하였다.

① 홍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군국 사무만 담당하게 하였고, 국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은 의정부에 부여하였다. 또한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③ 홍선 대원군은 호포법을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역에 대한 대가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④ 홍선대원군은 만동묘를 비롯하여 봉당 근거지로서 백성을 수탈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긴 채 대폭 정리하였다.

16. 다음 제시된 조약을 체결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今後)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조약(何等條約)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 ㉢ 1904년 2월 체결된 한·일 의정서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곳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의없이 제3국과 의정서에 반하는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다. ㉣ 1904년 8월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언론가 스티븐스가 초빙되었다(일본의 외교권·재정권 장악). ㉡ 1905년 11월 체결한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으며, 대한 제국은 이 조약의 체결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통감의 권한 확대를 명문화하였고, 고등관리 임용 시에는 반드시 통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일제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른바 ‘차관 정치(次官政治)’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7. 근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에는 나운규가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그린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② 한용운은 일본불교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③ 1907년에는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과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④ 「만세보」는 손병희, 오세창 등이 창간한 일간지로 순 한글판으로 발행되었으며, 일진회를 공격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정답 : ④

- ④ 「만세보」는 1906년 손병희, 오세창, 이인직을 중심으로 간행된 천도교의 기관지로 국·한문 혼용의 신문이다. 「만세보」는 일진회를 공격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1907년 대한신문으로 개칭되었다.
 ① 영화 ‘아리랑’은 나운규가 1926년에 발표하였다. ‘아리랑’은 우리 고유의 향토적인 정서가 은은히 배어 있는 슬픈 가락을 깔고 당시 일제 지배하의 망국의 통분과 슬픔을 자아내는 한편, 항일 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었다. ② 왜색 불교의 침투가 심화되자 한용운은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미신적 요소와 왜색 불교의 배격을 통해 불교의 쇄신을 주장하였으며,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를 위한 계몽 운동을 추진하였다. ③ 표기법 통일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시경, 지석영을 중심으로 학부(學部) 내부 기구로서 국문연구소가 설립(1907)되었고, 1908년에는 국어학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국어 맞춤법의 연구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18. 193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혁명군은 (㉠)의 지휘 하에 부대를 5개 중대로 개편 정비하고 중국의 요령 민중 자위군과 연합 전선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과 연합 작전을 전개한 조선 혁명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신개령 전투, 통화현 전투 등에서 대규모의 일·만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이를 대파하였다.
(㉢)이 이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과 연합하여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 또는 일·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특히 대전자령 전투에서는 4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승리하였으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하여 한·중 연합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 | | | | |
|---------|-------|-------|-------|
| ① ㉠ 양세봉 | ㉡ 의용군 | ㉢ 지청천 | ㉣ 호로군 |
| ② ㉡ 지청천 | ㉢ 의용군 | ㉣ 양세봉 | ㉤ 호로군 |
| ③ ㉠ 양세봉 | ㉣ 호로군 | ㉤ 지청천 | ㉥ 의용군 |
| ④ ㉡ 지청천 | ㉤ 호로군 | ㉥ 양세봉 | ㉦ 의용군 |

정답 : ①

㉠ 1929년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을 중심으로 국민부가 조직되었고, 중심 조직으로 조선혁명당이 예비부대로서 조선 혁명군이 조직되었다. ㉡ 조선 혁명군은 대도회(大刀會)가 이끄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활발한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영릉가 전투(1932)·흥경성 전투(1933)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 혁신 의회 산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삼아 활동하였다. ㉣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1932), 대전자령 전투(1933) 등에서 일·만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19.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제헌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 8차 개헌은 6·29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 ① ㉠ (X) ㉡ (O) ㉢ (X) ㉣ (O)

- | | | | |
|---------|-------|-------|-------|
| ② ㉠ (O) | ㉡ (X) | ㉢ (O) | ㉣ (X) |
| ③ ㉠ (O) | ㉡ (O) | ㉢ (X) | ㉣ (O) |
| ④ ㉠ (X) | ㉡ (X) | ㉢ (O) | ㉣ (X) |

정답 : ②

㉠ 제헌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 1972년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 1960년 4·19 혁명 이후의 3차 개헌에서는 내각 책임제와 민·참의원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를 구성하였다. ㉣ 8차 개헌은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간선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다. 6·29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골자로 하는 것은 9차 개헌이다.

20. 대한민국의 현대사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
| ㉠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체결되었다.
㉡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되었다.
㉣ 북한이 보낸 30여 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
|--|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정답 : ①

㉠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1966년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다. ㉡ 1968년 일어난 1·21 사태에 대한 내용이다.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으나 결국 발각되어 김신조가 생포되고 28명이 사살되었다. ㉢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1972년 7월의 사실이다.